



기업과 파트너 맺어주는 특별프로그램 제공

SES 사장 스테판 탄

“싱가포르 정보기술박람회는 제품 시연 및 전시에 그치지 않고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IT기업들과 비즈니스 파트너를 맺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오는 6월14일부터 17일까지 싱가포르 엑스포 전시장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규모 싱가포르 IT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 방한한 행사 주관사인 SES (Singapore Exhibition Services)의 스테판

탄 사장이 지난달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스테판 탄 사장은 “52개 나라에서 1,50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고 4만5,000여명의 전문 기업인들이 참관하는 싱가포르 IT박람회가 세계 IT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한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한국기업들이 이번 박람회를 통해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해 50% 이상의 방문객이 외국의 고위 경영진으로 특히 올해는 아시아 지역 정통부 장관회의도 같은 시기에 열릴 예정이어서 훨씬 많은 고위직 참가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박람회가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업체들과 실질 수요 바이어들을 연결시켜주는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한 전시의 개념이 아닌 실질적인 구매거래의 시장을 마련해 줄 것 이기에 많은 업체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을 통해 전시회 개최 3개월 전부터 실질적인 구매상담이 이뤄지도록 도울 것”이라며 “단순히 보여주는 쇼의 의미를 넘어 실질적으로 관련 IT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구매거래를 위한 시장을 마련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박람회는 인수합병과 기술협력을 원하는 기업들이 서로 적합한 기업들을 찾아보는 ‘기업쇼핑’을 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 네트워크, 모바일을 주제로 한 ‘커뮤니케이션’, 기업 솔루션을 다루는 ‘엔터프라이즈IT’, 위성, 미디어, 방송 장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브로드캐스트아시아’ 등 3개의 영역으로 이뤄지는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주제만큼 전세계 각국의 우수 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올해 박람회에는 삼성, LG전자를 비롯해 파나소닉, 지멘스, 에릭슨, 모토로라, 후지쯔 등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며, 무엇보다도 브로드캐스트아시아에서는 한국 방송 위원회가 주최하는 한국DMB관이 따로 설치될 예정이다. 한국 DMB관에는 다림비전, 홈캐스트, 휴트로, 코난테크놀러지, 이데토 액세스, 오픈 테크 등 44개 관련 업체가 참여를 확정한 상태다. ‘커뮤니케이션’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44개 한국 기업을 포함해 52개국 1,500여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브로드캐스트아시아’ 에도 45개국 844개 업체가 참가하고, ‘엔터프라이즈IT’ 전시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17개 국가관이 설치된다. ●

글 권경희 기자